

갯꽃 활짝 핀 돌산으로 피크닉 오세요

여수시 돌산갯고을한마당
20~21일 죽포리 갯고을센터
갯김치 담그기 등 체험·행사

“갯꽃이 피는 따뜻한 봄날 여수 돌산에서 가족 연인과 함께 즐거운 피크닉 하세요.”
여수시가 오는 20~21일 돌산 죽포리 돌산갯고을센터 일원에서 돌산갯고을한마당 ‘갯섬 피크닉’을 개최한다.
알싸한 특유의 맛을 지닌 여수의 첫 봄갯 수확을 맞아 ‘특특! 봄이 왔는가!’이라는 슬로건으로 돌산갯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돌산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시민 주도형 축제로 돌산만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주행사는 돌산갯고을센터 잔디밭과 방죽포 솔밭, 덕개천 풀밭에서 갯섬 도시락을 즐길 수 있는 갯섬 피크닉과 ‘꼬랑길따라·해변길따라’ 갯섬 트래킹이 펼쳐진다.
지역 농가와 돌산 갯 청년단 등이 주도하는 생갯, 갯 가공품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도 운영되



‘갯섬 피크닉’ 개최를 앞두고 마을 이장, 축제운영위원장, 직원 등 60여 명이 방죽포에서 덕개천까지 이어지는 하천(총 4.1km)에 영농폐기물과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며 갯김치 담그기 등 갯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도 준비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5일 깨끗하고 쾌적한 ‘갯섬 피크닉’ 축제 개최를 위해 마을 이장, 축제운영위원장, 직원 등 60여 명과 방죽포에서 덕개천까지 이어지는 하천(총 4.1km)에 영농폐기물과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돌산 갯이 지역 특산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며 “갯꽃이 피는 따뜻한 봄날 가족, 연인,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에서 잊을 수 없는 멋진 피크닉에 시민들의 많은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농수산물 500만달러 프랑스 수출길

유럽 수출개척단 공동마케팅 협약

사흘간 프랑스를 방문한 ‘고흥군 농수산물 유럽 수출개척단’이 총 500만달러(70억원) 규모 수출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공영민 고흥군수가 이끄는 수출개척단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쾨리엔코, 쾨에이스푸드,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 등과 ‘고흥 농수산물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맺었다.
쾨리엔코와는 200만달러 규모 수출협약을 맺었고, 쾨에이스푸드와 협약은 300만달러 규모이다.
이들 기업은 고흥유자로 만든 유자곡물당과 고흥 김 등 농수산물 판로를 넓히기로 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와는 고흥 농수산물의 유럽 고급 식재료 시장 진출에 힘쓰기로 했다. 고흥군은 오는 7월 열리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맞춰 유자 에이드, 유자 마말레이드(잼), 유자 곡물당 등 고흥 유자상품을 프랑스행 수출길에 실을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판로 개척과 고급 식재료 시장 진출에 노력해 세계적인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흥가치 브랜드 상품을 만들겠다”며 “농어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로는 행정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순천경찰, 사회단체 5곳과 치안 강화 협약

순천경찰은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16일 사회단체 5곳과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순천경찰서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순천지역 주요 사회단체 5곳(민주평등시민회의 순천시협의회, 대한민국 해병대 순천시 마린클럽,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5-B5(전남동부) 지구, 국제 로타리 3610지구 3지역, 국제 로타리 3610지구 4지역)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 4300여 명은 앞

로 지역 질서 유지와 치안 강화에 동참한다.
이날 순천경찰은 사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치안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국승민 순천경찰서장은 “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이 치안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범포 예방과 교통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함께 협력해 안전하고 행복한 순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1호 가입자 탄생

만 65~84세 10년 이상 영농인
1ha당 매달 40만~50만원씩 지급

농지를 남기고 은퇴금을 받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구례 1호 수혜자가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는 구례군 구례읍에 사는 박오(67)씨가 다음 달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구례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받는 대상자는 박씨가 처음이다.
이 사업은 만 65~84세 농업인이 농지를 팔고 농업 은퇴를 할 때 매달 일정 직불금을 지급한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먼저 제공한다.
만 65~84세 농업인 가운데 10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이라면 은퇴직불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는 3년 이상 보유한 농업진흥지역과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등이다.
농지를 팔아 이양하거나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지은행에 농지를 빌려주고 연금 지급 기간이 끝나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팔게 된다.
은퇴직불금은 84세까지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다.
‘농지 매도형’은 1ha당 매달 50만원(최대 200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구례 1호 가입자와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

만원)을 받고,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1ha당 매달 40만원(최대 160만원)을 받는다.
임성재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하며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더불어 청년 농업인을 유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시 개 식용 종식 문제 해결 전담팀 구성

“식용 목적 유통·판매 전면 금지”
광양시가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 종식 문제 해결을 위한 ‘개 식용 종식 전담팀(TF)’을 구성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오는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과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 운영 중인 개 식용 업체 영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현황을 광양시청 농업정책과, 식품위생과 등 업종별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

고 이후 전업, 폐업지원 대상에서 배제는 물론 즉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전담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총괄로 농장·도축장·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업정책과’와 식품접객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위생과’로 구성됐다.
이화엽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내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개 식용업계의 전·폐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